

‘디딤씨앗통장’,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공모전에서 ‘으뜸상’ 수상

- 가정위탁·양육시설·기초생활수급 아동이 월 5만 원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 -
- 2025년에는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 아동까지 지원대상 확대 -

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(월) 15시 서울 종로구 소재 한글학회 강당에서 (사)국어문화원연합회*가 개최하는 ‘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 및 시상식’에서 ‘디딤씨앗통장’ 사업이 으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* 「국어기본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전국 22개 국어문화원의 연합체

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이 됨을 의미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다른 명칭이다. 가정위탁·아동양육시설 등을 통해 보호받는 아동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아동이 직접 저축을 하거나 후원을 받아 일정 금액을 통장에 적립하면, 정부가 적립 금액의 2배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.

* 통장 개설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com),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신청

* 후원 신청 :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(ncrc.or.kr)에서 신청

디딤씨앗통장은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정부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, 2024년에는 대상 인원을 크게 확대(‘23년 7만 5천 명→‘24년 20만 5천 명)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. 내년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(한부모가정 포함)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.

임아람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“ ‘디딤씨앗통장’ 이 올해의 우리말 정책명으로 으뜸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” 라면서, “보다 많은 아동들이 미래의 ‘디딤’을 위한 ‘씨앗’을 키워갈 수 있도록, 앞으로도 취약아동의 자산형성과 자립에 대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 및 시상식 개요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	책임자	과 장	임아람 (044-202-3430)
	아동보호자립과	담당자	사무관	김기선 (044-202-3439)



□ 행사 개요

- 행사명 : '올해의 우리말빛' 보람 수여 및 시상식
- 때와 곳 : 2024년 12월 23일(월) 15시, 한글학회 지하 1층 강당
- 행사목적 : 쉽고 바른 우리말을 쓰는 기관 등의 명예를 높여 국어 문화 확산
- 보람 수여(인증패) : 사업 이름(4점), 공간 이름(4점), 아파트 이름(3점)
- 주최·주관 : ①사업, 공간 이름 보람 수여(한글학회·연합회/문체부 후원),
②아파트 이름 공모전 보람 수여(문체부/국어원·연합회)
- 참석 : 한글학회장, 국어문화원연합회장,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,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, 지역 국어책임관, 수상자 등 40여 명

□ 행사 일정

시간	행사 내용(안)	비고
*주요 인사 간담회*한글학회 5층 회장실, 14:40~14:55(15')		
15:00~15:02	2' ○ 행사 열기	사회자: 정재환
15:02~15:10	8' ○ 인사 말씀	한글학회장(김주원) 국립국어원장(직무대행 윤성천)
15:10~15:15	5' ○ 축하 말씀	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
15:15~15:25	10' ○ 심사위원장 심사평	- 사업·공간명: 리의도, 한글학회 - 아파트이름: 박철우, 안양대 교수
15:25~15:45	20' ○ 보람 수여 및 시상식	- 사업·공간명: 한글학회/연합회 - 아파트 이름: 문예실장/국어원/연합회 *장관상, 국어원장, 연합회장 각 1점
15:45~15:50	2' ○ 기념 촬영 및 행사 닫기	